

#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에 대한 小考

- 傷寒에 의한 疾患-特異 死亡率을 中心으로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sup>1</sup>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외학과<sup>2</sup>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sup>3</sup>

엄석기<sup>1</sup> \* · 김세현<sup>2</sup> · 어완규<sup>3</sup>

## On Estimation of the sentence "Two thirds of them died and seven out of ten died of cold damage"

- Focusing on 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 due to Cold Damage-

**Eom Seok-ki<sup>1</sup> \* · Kim Se-hyun<sup>2</sup> · Eo Wan-kyu<sup>3</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st-West Medicine, Graduate School of East-West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sentence "The number of my family member and relatives reached around 200, but since the first year of Geonan(建安) era, two thirds of them died and seven out of ten died of cold damage in less than ten years" in Sanghanjapbyeongron(Treatise on Cold Damage and Miscellaneous Diseases), which is allegedly known to be written by Jangnunggyeong(張仲景), we analyzed the sentence by three factors of time, location and people. These factors are us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disease outbreak, and through this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Approximate 10 year crude mortality rate since A.D 196(the first yea of Geonan era) in Jangsa(長沙) province was 67 out of 100 in the population. Approximate 10 year 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 of cold damage since A.D 196(the first yea of Geonan era) in Jangsa(長沙) province was 47 out of 100 in the population. Regardless of age, gender or other demographic variables, approximate 10 year proportionate mortality ratio since A.D 196(the first yea of Geonan era) in Jangsa province was 70.2%, which lead to the assumption that 70% of death is cold-damage related.

2. Increased 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 by cold damage in Jangsa(長沙) province for about 10 years since A.D 196(the first yea of Geonan era), and followed increased crude mortality rate in the population, threatened the stability of nation or local government. This is due to the repeated war in late Han Dynasty with political chaos and repeated flood caused by geographical disadvantage in Jangsa province.

Key Words : Jangnunggyeong(張仲景), Sanghallon(傷寒論), Sanghanjapbyeongron(傷寒雜病論), Crude mortality rate, 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

## I. 序論

「傷寒卒病論集<sup>1)</sup>」은 東漢 末年(A.D 200~210)에 張機에 의해 쓰여진 傷寒論의 序文으로 『仲景全書<sup>2)</sup>』에 수록되어 있으며, 傷寒論은 외감성 질환의 발생과 변화 및 변증논치에 대하여 실제 임상과 꼭 들어맞는 변증강령과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한 고대 한의학 서적이다.<sup>3)</sup>

張機는 「傷寒卒病論集」 중 “餘余宗族素多 向餘二百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sup>4)</sup>”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의 상한 유행이 『傷寒雜病論』을 저술하게 된 동기임을 설명하였다. 즉, 張機의 一家가 원래는 200여명의 대가족이었던 것이 建安元年(A.D 196)으로부터 대략 10년 동안에 그 3분의 2가 사망했는데 그 중 67%는 傷寒으로 인한 病死였으며, 이로 인하여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並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sup>5)</sup>” 즉, 부지런히 古

訓을 구하고 널리 衆方을 채집하여 『素問九卷』 『素問』·『九卷』·『八十一難』과 『陰陽大論』과 『胎臚藥錄』과 아울러 『平脈辨證』을 撰用하여 『傷寒雜病論』 合十六卷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傷寒卒病論集」 내용 중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병발생조사에서 고려하는 시간, 장소, 사람의 세 요소<sup>6)</sup>로 분석 가능한 구절이 있다.

이에 저자는 이를 분석하여 張機가 傷寒論을 저술할 당시의 長沙郡 지역의 조사망률과 상한으로 인한 질환-특히 사망률, 비례사망비 등을 조사한 후 그의 의를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질병의 유행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 어떤 인구집단에서 과거에 비해 예측되는 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질병은 병인, 숙주, 환경의 세가지 인자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발생조사에서는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세 요소가 흔히 이용된다.<sup>7)</sup>

「傷寒卒病論集」 중에는 建安元年(A.D 196)으로부터 대략 10년 동안(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이라는 ‘시간’과 張機의 一家가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長沙郡이라는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漢長沙太守<sup>8)</sup>”란 구절, 비슷한 주거환경의 張機의 가족집단(餘余宗族素多 向餘二百)이라는 ‘사람’의 세요소와 傷寒이라는 ‘특정 질병’을 명시한 “傷寒十居其七”과 사망현상에 대한 관찰기록인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이 나타난다.(표 1. 참고)

\* 교신저자 : 엄석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E-mail : sku0808@hanmail.net

Tel : 02-440-6254.

접수일(2008년 10월 20일), 수정일(2008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 1) 傷寒卒病論集란 명칭에 대하여 ‘傷寒雜病論集’이 옳다는 주장과 ‘傷寒卒病論’이 옳으며 集은 論曰에 붙여서 ‘集論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傷寒卒病論集의 앞부분 論曰 부터 夫天布五行 이전까지만 張機 본인이 직접 저술한 것이라는 주장과 문장전체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김용옥 解, 장중경 著, 註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pp.1-24. 讀傷寒論前須知之事에 관련된 내용과 주장이 실려있다)
- 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5. 26권본과 20권본 두 종류가 있다. 26권본은 명대 趙開美가 校刻한 것으로 16C말에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張仲景의 傷寒論 10권, 成無已의 注解傷寒論 10권, 宋雲公의 傷寒類證 3권, 張仲景의 金匱要略方論 3권이 포함되어 모두 4종이다. 20권본은 청대 光緒年間에 간행되었으며, 張柳子가 參注한 集注傷寒論 10권, 金匱要略方論 3권, 傷寒類證 3권, 成無已의 傷寒明理論(傷寒明理藥方論을 포함) 3권 및 청대 曹樂齋의 運氣掌訣錄 1권 등 모두 5종이 들어있다.)
- 3) 맹용재 譯編, 傷寒論概說.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p.17.
- 4) 張仲景 編著, 趙開美 校刻,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

5) 張仲景 編著, 趙開美 校刻,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

6) Richard F. Morton 외 著,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2007, p.4.

7) Richard F. Morton 외 著,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2007, p.4.

8) 張仲景 編著, 趙開美 校刻,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

시간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 A.D 196~205년간
장소	漢長沙太守南陽張機 長沙郡
사람	餘宗族素多 向餘二百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가족집단
질병	傷寒 外感性熱病
관찰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 200명 * 2/3 = 사망자 사망자 * 7/10 = 상한으로 인한 사망자

표 1. 「傷寒卒病論集」 중의 질병발생조사 요소

張機는 귀족계층인 士人<sup>9)</sup>으로 長沙郡 太守<sup>10)</sup>였음에도 불구하고 正史에 그 이름과 관직이 나타나지 않아 실존인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첫째, 『太平御覽<sup>11)</sup>』 卷 722 方術部 ·卷 739 疾病部 및 皇甫謐의 『甲乙經·序』에 張仲景이 王粲<sup>12)</sup>을 그의 나이 21세(A.D 197)에 荊州 지역에서 진찰한 기록이 남아있으며<sup>13)</sup>, 둘째, “漢長沙太守醫聖張仲景墓”라는 碑文과 晉·成帝때인 “咸化五年(328년)”이란 刻文이 새겨진 墓碑가 明의 崇禎五年(1631년)에 발굴

되어 보존되어 오다가 1981년 장중경연구회에서 고고학적 검증을 거쳐 晉代에 만들어진 仲景墓碑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sup>14)</sup>, 셋째, 三國時代 晉나라 甘露 3年(258년)에 쓰여진 皇甫謐의 『甲乙經·序』에서 “近代太醫令王淑和撰次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이라 하여 王淑和란 인물이 장중경의 遺論을 모아서 정리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王淑和가

魏나라의 太醫令으로 220~256년간에 실존했던 인물<sup>15)</sup>이며, 皇甫謐이 214~282년간의 魏晉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고려하면, 張機와 王淑和·皇甫謐이 대략 40~50년간의 시대차를 두고 생존했었으며, 王淑和는 張機에게 직접 혹은 그의 제자인 衛迅을 통하여 『傷寒雜病論』를 전수받았으며 이를 撰次하여 후세에 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세가지를 통하여 볼 때, 張機가 역사속의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漢代에 각 가족이 거주하는 家 혹은 戶는 대개 부모와 자식을 포함하여 5~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가족인 경우에는 從兄弟까지도 포함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 가장인 父를 중심으로 하나의 혈연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되었고, 한 가족이 분열되어 별거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독립된 한 가족의 출현이었지만 공동의 혈연적 유대에 의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강력히 결속하여 항시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sup>16)</sup>을 고려하면, “餘宗族素多 向餘二百”의 張機의 일가 200여명이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9) 귀족이란 용어는 正史類나 당시 典籍에는 드문 용례이다. 그 당시 용어로서 이 시대의 정치 사회적 지배계층을 나타내는 용어는 高門 士族 등 20여종 이상이나 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士族, 일본 및 구미에서는 貴族으로 통칭하는 것이 상례이다.(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강좌 중국사 II, 서울. 지식산업사. 1999. p.7.)  
10) 漢代는 郡의 수령을 太守라고 불렀고 식록은 2,000석으로 구경과 같았다. 태수는 군에서 전권을 행사하였다.(이국희 지음. 도표로 이해하는 중국문화사. 서울. 현학사. 2005. p.28.)  
11) 서명. 송 太宗 趙昀의 명에 따라 李昉 등 14명이 편찬했다. 太平興國 2년(977) 집필에 들어가 8년(983)에 완성했다. 당초 명칭은 太平總類였으며, 태종이 자신의 博覽을 과시하기 위해 매일 3권씩 1년만에 전체를 열독했다 하여 명칭이 태평어람으로 바뀌었다. 漢魏이래 송 초까지의 야사 소설 筆記 異聞을 모든 유서로서 인용범위가 넓고 다양하다.(이병갑 엮음. 중국역사사전. 서울. 학민사. 1995. pp.515-516.)  
12) 三國志 卷 21 王粲傳 및 卷 23 文選에 기록이 있는 실존인물이다.  
13) 정성채. 상한 이론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22-23. <2. 장중경의 사적과 상한잡병론 1) 중경과 왕중선>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4) 김동의,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외 10인 共編譯. 현대상한론. 서울. 한의문화사. p.1. 각주1)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15) 甲乙經·食治篇에 “河東衛迅曰 ~~~ 高平王熙稱食不欲 雜 雜則或有所犯”이라하여 王淑和가 仲景의 제자인 衛迅가 같은 시대 사람임을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魏나라가 220년에 건국되어 265년에 멸망하고 이어서 西晉이 건국된 것으로 보아, 皇甫謐의 甲乙經·序의 “近代太醫令 王淑和”는 魏나라의 太醫令으로 220~265년간에 실존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정성채. 상한 이론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27. <3. 상한론에 대한 왕숙화의 공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6) 이춘식 저. 중국 고대사의 전개.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1995. pp.390-391.

建安紀年是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가 즉위한 196년을 가리킨다. 建安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가 사용한 세 번째 년호로써 建安紀年은 196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은 196년부터 205년간의 약 10여년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漢長沙太守南陽張機”란 구절은 南陽郡 출신의 張機가 漢나라 荊州刺史 관할의 七郡 중의 하나인 長沙郡 太守임을 의미한다. 『後漢書』 및 『三國志』 중 長沙郡 太守로 기록된 인물 중에 張機는 나타나지 않으나, 발굴된 묘비에 “漢長沙太守醫聖張仲景墓”로 기록되어 있고, 唐나라의 甘伯宗이 저술한 『名醫傳』에서 “南陽人 名機 仲景乃其字也 舉孝廉<sup>17)</sup> 官至長沙太守 時受術于同郡張伯祖 時人言識用精微過其師<sup>18)</sup>”라 한 것으로 보아, 張機가 長沙郡의 太守를 지낸 것은 사실로 보인다. 『傷寒卒病論集』이 쓰여진 가장 이른 시기를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에 근거하여 205년 이후로 볼 때 이 시기 전후의 長沙郡 太守에 대한 기록은 『後漢書·卷105·劉表傳』에 기록된 張羨 張禪 부자가 建安3年(A.D 198) 이래로 수년간 太守를 지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sup>19)</sup> 따라서 張機가 長沙郡 太守이었던 시기는 대략 200년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시기 전후로 長沙郡에서 그의 一家가 거주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漢代에는 각 가족이 거주하는 家 혹은 戶는 대개 부모와 자식을 포함하여 5~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가족인 경우에는 從兄弟까지도 포함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 가장인 父를 중심으로 하

나의 혈연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되었고, 한 가족이 분열되어 별거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독립된 한 가족의 출현이었지만 공동의 혈연적 유대에 의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강력히 결속하여 항시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sup>20)</sup>을 고려하면, “餘余宗族素多 向餘二百”의 張機의 일가 200여명이 이 시기에는 長沙郡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傷寒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素問·熱論』에서는 “오늘날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상한의 종류이다.”고 하였고, 『難經·58難』에서는 “상한에는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의 다섯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상한은 일체 외감성 질환의 총칭으로 앞에서 말한 다섯가지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상한은 외부로부터 風寒의 邪氣가 감축되어 곧바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위 다섯가지 중의 ‘傷寒’만을 말한다.<sup>22)</sup>

위의 196~205년 사이인 10년 동안의 장사군 지역에 거주했던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장기의 가족 집단이라는 세 요소와 특정질병인 傷寒과 “其死亡者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의 내용을 결합하면, 시기 196-205년의 10년 동안 장사군의 조사망률(crude mortality rate)<sup>23)</sup> 및 상한으로 인한 질환-특이 사망률(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sup>24)</sup>, 같은 시기

17) 이병갑 엮음. 중국역사사전. 서울. 학민사. 1995. p.571. 漢代에 관리를 선발하던 과목. 察學제도의 주요 과목 중 하나. 董仲舒의 건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郡國에서 우수한 인재를 천거하는 취지로 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실제로는 호족 세력 자체가 쉽게 관직에 나아가는 길목 역할을 하였다.

18) 정성채. 상한 이론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22. 朱佑武 校注. 宋本傷寒論 校注 宋刻傷寒論序. 호남과학기술출판사. 1982. p.1.에서 인용함을 밝히고 있다.

19) 정성채. 상한 이론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22-23. <2. 장중경의 사적 과 상한잡병론 2) 중경의 장사태수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0) 이춘식 저. 중국 고대사의 전개.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1995. pp.390-391.

21) 196년부터 205년간의 약 10여년간에 張機의 일가 200여명이 어디에 거주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단지, 南陽人이란 기록에 근거하면 南陽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시대의 사회상을 고려하면 長沙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張機의 직위와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하여 長沙에 거주하였다고 추론하고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22) 맹웅재 譯編. 傷寒論概說.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p.19.

23) Richard F. Morton 외 저,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2007. p.19. 조사망률(crude mortality rate)은 매년 어떤 인구집단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는 어떤 지역사회의 인구(편의상 연앙인구를 사용) 1,000명당 삼아자 수를 나타낸다.

24) Richard F. Morton 외 저,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2007. p.22. 질환-특이사망률(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은 심

의 10년 동안 나이나 성별 등의 다양한 요인에 관계 없이 상한이 전체 사망에 기인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sup>25)</sup>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서기 196-205년의 10년 동안 장사군의 조사망률(crude mortality rate)은 인구 100명당 67명이었고 상한으로 인한 질환-특이 사망률(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은 인구 100명당 47명이었다. 또한, 같은 시기의 10년 동안 나이나 성별 등의 다양한 요인에 관계없이 상한이 전체 사망에 기인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는 70.2 %로 계산되어 전체 사망의 70%는 상한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표 2. 참고)

조사망율	向餘二百 其死亡者 三分有二 <b>인구 100명당 67명</b>
질환-특이 사망율	傷寒十居其七 <b>인구 100명당 47명</b>
비례사망비	向餘二百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 <b>70.2%</b>

표 2. 「傷寒卒病論集」 중의 조사망율, 상한에 의한 질환-특이 사망률, 비례사망비

### Ⅲ. 考察

「傷寒卒病論集」의 “餘余宗族素多 向餘二百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 …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 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並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은 대개 張機가 역병으로 인한 참상 특히 그 중의 많은 인명이 상한병에 의해서 생명과 건강을 잃는 정

장질환과 같은 어떤 특정 질환으로 인한 원인별 사망률로써 전 인구 집단에 대하여, 또는 어떤 연령집단이나 종족, 성별 등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25) Richard F. Morton 외 저,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아. 2007. p.23.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는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용된다.

황을 목도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 뜻을 세우고 선인들의 의료경험을 총괄한 서적인 상한잡병론을 펴낸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역학(Epidemiology)에서 집단의 질병유행 조사시 우선 고려하는 시간 장소 사람의 세요소와 특정질환과 사망에 대한 관찰기록을 고려하여, 建安元年(196년)으로부터 대략 10년 동안의 장사군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집단의 조사망률과 상한으로 인한 질환-특이 사망률을 분석한 후, 이를 다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고찰하여 보면, 장중경의 생존한 시대의 상한에 대한 치료방법 연구는 국가 혹은 지역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권세력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傷寒의 넓은 의미를 ‘일체 외감성 질환의 총칭’에서 좀더 폭넓은 ‘일체 외감성 질환 및 유행성 열병에 대한 총칭’으로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晉書·卷十五·志第五·地理下』에 의하면 長沙郡은 장강중류지역<sup>26)</sup>으로 舜 시대의 十二牧의 하나인 荊州 지역이었으며, 전국시대에는 楚의 지역이었는데, 秦 시대에 楚의 巫中 땅을 취하여 黔中郡 이라고 하였다가 楚가 멸망한 이후에 長沙郡으로 개칭하였으며, 前漢의 高祖(劉邦, B.C 247~195)에 의하여 長沙郡과 桂陽郡으로 나뉘어졌으며, 前漢의 武帝(劉徹, B.C 156~87)에 의해 長沙郡은 다시 長沙郡과 零陵郡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이후로 荊州 지역은 南郡·南陽·零陵·桂陽·武陵·長沙·江夏의 七郡으로 나뉘어져 다스려졌고, 魏晉시대에 이르러 長沙郡은 다시 長沙郡·衡陽郡·湘東郡·安城郡으로 나뉘어 진다.<sup>27)</sup>

26) 홍연아. 兩晉交替期的의 荊州.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

장강은 관습상 상·중·하류의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대략 漢代의 益州·荊州·揚州에 포함된다. 後漢末의 荊州는 “南으로는 五嶺에 접하고, 북으로는 漢川을 막으니, 北方 數千里라”고 하여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으나, 이는 武陵山脈과 洞庭湖를 잇는 선을 경계로 다시 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7)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76.

“荊州. 案禹貢荊及衡陽之地, 舜置十二牧, 則其一也 周禮: 「正南曰荊州」春秋元命包云: 「軫星散爲荊州」荊, 強也, 言其氣躁強. 亦曰警也, 言南蠻數爲寇逆, 其人有道後服, 無道先強, 常警備也. 又云取名於荊山. 六國時, 其地爲楚. 及秦, 取楚鄢郢爲南郡, 又取巫中地爲

長沙郡은 後漢代에 인구가 집중이주<sup>28)</sup>하여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당시에 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sup>29)</sup>이며, 곡창지대였으나, 장강 증류에 위치하여 장마철에는 수해가 자주 발생<sup>30)</sup>하였던 지역이다.

長沙郡의 세대와 인구에 대하여 『漢書·地理志 第八下』에서는 43,470 세대에 인구가 235,825명이라고 하였으며<sup>31)</sup>, 『後漢書·卷三十二·志第二十二·郡國

四』에서는 255,854 세대에 인구가 1,059,372명이라고 하였으며<sup>32)</sup>, 『晉書·卷十五·志第五·地理下』에서는 長沙郡은 33,000 세대이며<sup>33)</sup> 衡陽郡은 23,000 세대이며<sup>34)</sup> 湘東郡은 19,500 세대이며<sup>35)</sup> 安成郡은 3,000세대<sup>36)</sup>라고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중국의 전체 인구수<sup>37)</sup>에 대하여는 『晉書·卷十四·志第四·地理上』에서는 平帝元始二年(A.D 5)에 前漢은 12,233,062 세대에 인구가 59,594,978명이라 하였고, 桓帝永壽三年(A.D 153)에 後漢은 10,677,960 세대에 인구가 56,486,856명이라 하였고, 劉備章武元年(A.D 221)에 蜀나라는 200,000 세대에 인구는 900,000명이라 하였고, 孫權赤烏五年(A.D 242)에 吳나라는 523,000세대에 인구는 2,400,000명이라 하였고, 太康元年(A.D 280) 西晉은 2,459,840 세대에 인구수는 16,163,863 명이라고 하였다.<sup>38)</sup> 한편, 太康元年의 세대수와 인구수

黔中郡, 以楚之漢北立南陽郡, 滅楚之後, 分黔中為長沙郡, 漢高祖分長沙為桂陽郡, 改黔中為武陵郡, 分南郡為江夏郡, 武帝又分長沙為零陵郡, 及置十三州, 因舊名為荊州, 統南郡, 南陽, 零陵, 桂陽, 武陵, 長沙, 江夏七郡, 後漢獻帝建安十三年, 魏武盡得荊州之地, 分南郡以北立襄陽郡, 又分南陽西界立南鄉郡, 分枝江以西立臨江郡, 及敗於赤壁, 南郡以南屬吳, 吳後遂與蜀分荊州, 於是南郡, 零陵, 武陵以西為蜀, 江夏, 桂陽, 長沙三郡為吳, 南陽, 襄陽, 南鄉三郡為魏, 而荊州之名, 南北雙立, 蜀分南郡, 立宜都郡, 劉備沒後, 宜都, 武陵, 零陵, 南郡四郡之地悉復屬吳, 魏文帝以漢中遺黎立魏興, 新城二郡, 明帝分新城立上庸郡, 孫權分江夏立武昌郡, 又分蒼梧立臨賀郡, 分長沙立衡陽, 湘東二郡, 孫休分武陵立天門郡, 分宜都立建平郡, 孫皓分零陵立始安郡, 分桂陽立始興郡, 又分零陵立邵陵郡, 分長沙立安成郡, 荊州統南郡, 武昌, 武陵, 宜都, 建平, 天門, 長沙, 零陵, 桂陽, 衡陽, 湘東, 邵陵, 臨賀, 始興, 始安十五郡, 其南陽, 江夏, 襄陽, 南鄉, 魏興, 新城, 上庸七郡屬魏之荊州, 及武帝平吳, 分南郡為南平郡, 分南陽立義陽郡, 改南鄉為順陽郡, 又以始興, 始安, 臨賀三郡屬廣州, 以揚州之安成郡來屬, 州統郡二十二, 縣一百六十九, 戶三十五萬七千五百四十八”

- 28)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30. 동한대 이후에 강회(江淮) 유역(長江과 淮河 유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방의 농업 생산이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이었다.
- 29)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54. 續漢書·郡國志의 판적(140년)에 근거하면, 전국의 인구는 9,336,665호, 47,892,413명이었다. 이 중에서 진령과 회화를 경계로 북방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3/5, 남방의 인구는 2/5를 점유하였다. 이때 100만호와 500만명을 초과한 곳은 豫州·荊州·益州 등 이었다. 이 중에서 예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들은 모두 장강 유역에 걸쳐 있었으며 형주 양주 익주의 총호수는 전국의 42.2%, 총 인구수는 전국의 37.26%를 점유하였다.
- 30)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30. 동진(東晉)永和年間(345~356)에는 荊州에 圍垸(흙으로 쌓은 둑 또는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지하고 垸田(제방안에 있는 농경지)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다. 이에 따라 장강 중하류 유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풍년이 잦아지고 양식이 풍족해졌다.
- 31)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1)·漢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108.

“長沙國 戶四萬三千四百七十 口二十三萬五千八百二十五 縣十三”

- 32)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1)·後漢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80. 長沙郡 十三城 戶二十五萬五千八百五十四 口百五萬九千三百七十二
- 33)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76. 長沙郡漢置 統縣十 戶三萬三千
- 34)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76. 衡陽郡吳置 故屬長沙 統縣九 戶二萬三千
- 35)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77. 湘東郡吳置 故屬長沙 統縣七 戶一萬九千五百
- 36)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77. 安成郡吳置 統縣七 戶三千
- 37)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50. 秦~漢代 이전의 인구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수 없고 단지 추측에만 의존할 뿐이다. 인구 추계에 의하면 西周代에 1,300여만 명이었던 인구가 전국 시대에는 2,00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38)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点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69. “至平帝元始二年, 民戶千二百二十三萬三千六十二, 口五千九百五十九萬四千九百七十八, 其地東西九千三百二里, 南北萬三千三百六十八里. … 至桓帝永壽三年, 戶千六十七萬七千九百六十, 口五千六百四十八萬六千八百五十六, 斯亦戶口之滋殖者也. 獻帝建安元年拜曹操為鎮東將軍, 封費亭侯. 魏文帝黃初三年, 初制封王之庶子為鄉

를 토대로 세대당 인구수를 계산(6.57명/세대)하여 西晉의 長沙郡·衡陽郡·湘東郡·安成郡의 총 세대수에 곱하면 이 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수(515,745명)를 추측할 수 있다.

표 3과 4를 참고하여 보면 A.D 5년에서 153년 사이에 중국의 총인구수는 5.2% 감소하나 長沙郡 지역의 인구수는 449% 증가<sup>39)</sup>한 것으로 나타나며, A.D 153년에서 280년 사이에 중국의 총인구수는 72%나 급격하게 감소하며 전시대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長沙郡 지역의 인구수 또한 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A.D 153년에서 280년 사이의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란 표현이 張機의 일족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국가 전체의 현상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시대	지역	세대수	인구수
前漢	長沙	43,470	235,825
後漢	長沙	255,854	1,059,372
西晉	長沙	33,000	총 78,500 <i>(추정)</i> 515,745
	衡陽	23,000	
	湘東	19,500	
	安成	3,000	

표 3. 長沙郡 지역의 인구 변화(前漢~西晉)

시대	시기	세대수	인구수
前漢	平帝元始2年 (A.D 5)	12,233,062	59,594,978
後漢	桓帝永壽3年 (A.D 153)	10,677,960	56,486,856
蜀	劉備章武元年 (A.D 221)	200,000	900,000
吳	孫權赤烏5年 (A.D 242)	523,000	2,400,000
西晉	太康元年 (A.D 280)	2,459,840	16,163,863

표 4. 前漢~西晉의 총인구 변화(前漢~西晉)

公，嗣王之庶子為亭侯，公侯之庶子為亭伯。劉備章武元年，亦以郡國封建諸王，或遙採嘉名，不由檢土地所出。其戶二十萬，男女口九十萬。孫權赤烏五年，亦取中州嘉號封建諸王。其戶五十二萬三千，男女口二百四十萬。… 太康元年，平吳，大凡戶二百四十五萬九千八百四十，口一千六百一十六萬三千八百六十三”

39)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54. 동한대에 남방의 인구가 서한대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기보다는 북방의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한 결과였던 것이다.

東漢은 역사적으로 역병이 비교적 심각하게 퍼졌던 시기이다. 東漢 196년(A.D 25~220) 동안에 발생한 역병은 正史의 기록에 나타난 것만 22 차례에 달한다.<sup>40)</sup> 이 중에서 張機의 生卒年度로 추정되는 시기인 150~220년간과 거의 유사한 시기인 A.D 151년에서 219년 사이의 66년간에 12번의 역병이 유행한다. 또한 이 시기는 중국 인구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 A.D 153년 이후에 해당한다. 그러나, A.D 37년에서 151년 사이에 10번의 역병의 유행이 있었으나 이 시기 전후인 A.D 5년에서 153년 사이에 중국의 총인구수가 5.2% 감소에 그친 것을 고려한다면 단지 역병의 유행이 A.D 153년 이후에 나타난 중국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표 5 참고)

諡號	年號	양력
光武帝 劉秀	建武 13	37
	建武 14	38
	建武 20	44
	建武 22	46
	建武 25	49
	建武 26	50
和帝 劉肇	永元 4	92
安帝 劉祜	永初 4	110
	元初 6	119
	延光 4	125
桓帝 劉志	元嘉 1	151
	延熹 4	161
	延熹 5	162
	延熹 9	166
靈帝 劉宏	建寧 4	171
	熹平 2	173
	光和 2	179
	光和 5	182
	中平 2	185
獻帝 劉協	建安 13	208
	建安 22	217
	建安 24	219

표 5. 東漢시대(A.D 25~220) 역병 발생연대표

\* 이 표는 이태재의 중국 고대 의정사(진한~양송)에 관한 연구(2005)의 p.15에 나오는 표1 동한시대 역병 발생연대표를 인용한 것입니다.

40) 이태재. 중국 고대 의정사(진한~양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5.

張仲景이 살았던 시대는 後漢末 정치암흑시기라 불리우는 兵戰撓攘의 桓帝(A.D 146~167) 靈帝(A.D 167~189) 獻帝(A.D 189~220)의 三朝시대에 해당되는데, 十常侍들의 횡포와 弄政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왕권이 미약해지면서 황건적이 발흥하였으며 董卓 孫堅 曹操 등의 호족세력이 쟁립하여 황건적 토벌을 명분으로 권력쟁탈을 일삼게 되어 민심은 완전히 도탄에 빠져있는 실정이었다.<sup>41)</sup>

중국 5천년간의 기후변화상에 있어서 이 시대는 2차 한랭기에 해당했던 시기로서 東漢시대의 중국의 기후는 한랭한 기후가 우세하여 겨울에는 아주 추웠으며 늦은 봄에도 국도 낙양에 눈이 내려 동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sup>42)</sup> 2차 한랭기(기원초~A.D 600)에는 연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4℃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전쟁 및 한랭한 기후변화는 농업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전쟁과 기근을 피한 크고 작은 규모의 인구 이동<sup>44)</sup>이 유발되었는데, 長沙城이 속했던 荊州 지역의 경우는 동한시대의 8인의 현자 중에 한명이었던 劉表가 初平元年(A.D 190)에 섭정한 이래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던 까닭에 타지역의 피난민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sup>45)</sup>

이를 통하여 볼 때 A.D 153년에서 280년 사이의 급격한 인구변화의 요인으로는 첫째, 대규모 역병의 유행 둘째, 정치적 혼란과 전쟁 셋째, 한랭한 기후 넷째, 기근과 크고 작은 규모의 인구이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중경이 살았던 長沙郡이 속했던 荊州 지역의 경우는 전쟁의 혼란기에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던 지역으로 당 시대에 가장 인구가 집중되던 지역이었으며, 지리적

으로 장강중류에 속하여 장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빈번하였던 지역으로, 대규모 역병에의 노출 위험성이 타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았던 곳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유행한 역병 및 특히 상한에 의한 사망률의 폭발적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 집단의 조사사망률의 비약적 증가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폭넓은 의미의 傷寒인 ‘일체 외감성 질환 및 유행성 열병에 대한 치료법 연구는 정부 차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이 자명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傷寒論의 저술은 장기의 가족사에 근간한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의 집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長沙太守張機著’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V. 結論

張機의 著로 알려진 「傷寒卒病論集」 중의 “餘余宗族素多 向餘二百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 其死亡者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병 발생조사에서 고려하는 시간, 장소, 사람의 세 요소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建安元年(A.D 196)으로 부터 대략 10년 동안의 장사군의 조사사망률(crude mortality rate)은 인구 100명당 67명이었다.

2. 建安元年(A.D 196)으로 부터 대략 10년 동안의 장사군의 상한으로 인한 질환-특이 사망률(disease-specific mortality rate)은 인구 100명당 47명이었다.

3. 建安元年(A.D 196)으로 부터 대략 10년 동안의 장사군의 나이나 성별 등의 다양한 요인에 관계없이 상한이 전체 사망에 기인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는 70.2%로 계산되어 전체 사망의 70%는 상한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41) 은종원. 상한론이 후세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95. p.9.

42) 은종원. 상한론이 후세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10.

43)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50.

44)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167. 秦 西漢代 東漢代末期-삼국시대에도 크고 작은 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

45) 은종원. 상한론이 후세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9.

4. 建安元年(A.D 196)으로 부터 대략 10년 동안의 장사군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집단의 상한에 의한 질환-특히 사망율과 이로 인한 인구집단의 조사망율 증가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으며, 후한말의 정치적 혼란기의 전쟁의 증가와 장사군 지역의 지리적조건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상한론의 저술은 장기의 가족사에 근간한 개인적인 연구보다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의 집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長沙太守張機著’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傷寒의 넓은 의미를 ‘일체 외감성 질환의 총칭’에서 좀더 폭넓은 ‘일체 외감성 질환 및 유행성 열병에 대한 총칭’으로 확대해야 한다.

## 參考文獻

### <논문>

1. 은종원.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9, 10.
2. 이태재. 中國 古代醫政史(진한~양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5.
3. 정성채.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22-23. p.27.
4. 홍정아. 兩晉交替期の 荊州.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

### <단행본>

1. 김동의,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외 10인 共編譯. 현대상한론. 서울. 한의문화사. p.1.
2. 김용욱 解, 장중경 著. 註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pp.1-24.

3. 류제현. 중국역사지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50, 130, 150, 154, 167.
4. 맹웅재 譯編. 傷寒論概說.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p.17, 19.
5.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편. 강좌중국사 II. 서울. 지식산업사. 1999. p.7.
6. 이국희 지음. 도표로 이해하는 중국문화사. 서울. 현학사. 2005. p.28.
7. 이병갑 엮음. 중국역사사전. 서울. 학민사. 1995. pp.515-516, 571.
8. 이춘식 저. 중국 고대사의 전개.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1995. pp.390-391.
9. 張仲景 編著, 趙開美 校刻.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
10.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點本二十五史(1)漢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108.
11.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點本二十五史(1)後漢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80.
12. 中州古籍出版社 編. 標點本二十五史(2)晉書.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p. 69, 76, 77.
1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 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5.
14. Richard F. Morton 외 著, 김순덕, 이준영, 천병철 譯. 역학·생물통계학.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2007. p.4, 19, 22, 23.

